

중국, 농업부문 거시정책 전개

식량증산과 농민소득 증대는 중국의 농업부문 거시정책의 중요 목표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분야 거시정책들이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농업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거시정책의 내용과 추진 경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농민소득 증대방안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식량생산과 농민소득은 저조한 수준을 보여 왔고, 도농간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일부 업계의 과도한 투자와 토지, 자본 등 요소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전환에 식량재배의 비교우위 저하 등의 요인이 더해져 작년 식량 경지면적은 건국 이래 최저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식량생산량도 지난 14년 동안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의 식량수급 불안을 심화시켰고 농민소득의 안정적인 증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 당 중앙과 국무원은 시급히 농민 소득 증대와 식량증산 및 농업의 기초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거시정책을 수립하였다.

금년초 중앙정부는 ‘중국공산당 중앙국무원의 농민소득증대 촉진을 위한 정책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於促進農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見)을 발표한데 이어 일련의 정책조치들을 내놓았다.

즉, 식량직접보조, 우량종자보조, 농기구구매표조 및 농업세 경감을 내용으로 하는 ‘3보조 1경감(三補助一減)정책’이 그것인데, 정책시행후 농민소득을 2% 가량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농업특산세 폐지와 농업세의 세율인하 및 면제와 같은 조치는 농촌세계개혁의 박차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 식량생산의 회복과 발전

국무원은 농업과 식량사업회의 및 식량유통체제 개혁회의를 잇따라 소집하여 식량생산과 유통부분의 개혁과 ‘식량성장책임제(糧食省長負責任)’ 시행강화를 강조하면서, 각 성급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우량품종 보조와 농기구구매 및 설치보조를 확대하여 식량산업 발전을 가속화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28개성(省)의 우량품종 보조금은 16억 위안 이상으로 그 중 중앙재정의 13개 식량 주산성에 대한 보조금은 12억 4,000만위안에 달한다. 중앙이 안배한 농기구 구입보조금은 7,000만 위안이고, 지방 각급 재정의 보조금은 4억 위안 이상에 달한다.

3. 경지남용 방지

국가는 농경지 보호를 국가식량안보 확보 및 식량 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근본 조치로 삼아 토지관리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불법 농지가 점유된 각종 개발구역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무원은 기본농지식목, 토지시장 정돈, 농촌 토지임대 분쟁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채택하여 경지남용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시행은 올해 식량경작면적의 증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식량 및 농업 종합생산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4. 농산물 시장과 농업용 생산재 시장의 감독 관리

국가의 거시조정 방침에 따라 관련 부문은 화학비료 생산과 수출입세, 가격 등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화학비료의 구입과 판매간 차율, 도매차율 및 소매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였다.

농업용 생산재시장을 정돈하고, 농자재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식량 구매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식량 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조생 장립종벼, 중생벼, 만생벼 및 중단립종벼의 최저구매가를 제정하였다.

중앙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수립하여 집행중인 이 같은 거시정책은 비교적 단기간에 중국 농업과 농촌경제 영역에서 단계적인 성과를 가져왔다.

4.1. 농민의 현금 소득증가폭이 8년 만에 최고 수준

2004년 상반기 농민의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1,345위안(약 2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하였다. 물가요인을 배제한 실질증가율은 10.9%로 작년 동기대비 8.4% 증가한 규모로 1997년 이래 소득증가폭이 가장 크다. 이 같은 농민현금소득 증대는 도시주민의 소득증가폭을 초과하는 것으로 그 증가폭이 도시주민의 소득 증가폭을 2.2% 상회한다.

4.2. 식량생산의 중요 전기 마련

소맥을 포함한 여름작물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4.8% 증가한 1억 10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년 연속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생벼 경작면적 역시 7년 연속 감소 국면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이며, 식량 주산성의 식량생산능력이 향상되어 식량 재배면적과 생산량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봄, 여름철 작물의 경작면적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을철 수확 작물의 증산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식량 경작면적이 15억 무(1무는 약200 평)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5년 연속 감산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3. 농업과 농촌경제의 구조조정 가속화

비교우위 농산물의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질 전용 식량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우질 밀 전용면적은 밀 총면적의 46%를 차지하여 전년에 비해 6% 증가하였다. 우질 조생벼 면적은 약 70.5%로 전년대비 약 8% 증가하였다. 유채(油菜) 면적은 74.3%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 축산업과 어업 생산도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

4.4. 정부의 농업거시조정 능력 제고

중앙정부는 농업부문의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의 농업에 대한 거시조정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중에서 중앙정부는 농업부문으로의 투입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농업 발전을 위한 정부노력의 최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국채발행 투자 총규모 감소라는 상황 하에 농업지원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에 비해 5% 증가하였다. 또한 ‘3보조 1경감’ 등 정책의 실시는 향진(鄉鎮) 기구의 개혁과 농촌 하부조직의 민주적 건설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4.5. 농민의 생산 적극성의 제고

중앙의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정정책 실시는 농민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업생산비용을 감소시키며 농업비교우위를 제고함으로써 농민의 생산 적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자료 : <http://www.agrisd.gov.cn>에서
(이현주 hjlee@krei.re.kr 02-3299-43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